



프로야구 NC, FA 김성욱과 2년 최대 3억 원에 재계약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외야수 김성욱(31)과 2년간 계약금 5000만 원, 총연봉 2억 원, 옵션 5000만 원을 합쳐 최대 3억 원에 재계약했다.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왼쪽)이 16일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25분 선제골을 넣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런던 더비, 환호로 시작해 한숨으로 끝났다

손흥민, 아스널전 선제골 리그 6호
토트넘, 잇단 골 허용 1-2 역전패
황희찬 울버햄프턴, 뉴캐슬에 0-3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북런던 더비에서 리그 6호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16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1라운드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25분 토트넘의 선제골을 넣었다.

동료의 크로스가 전방 경합 상황에서 흘러나오자 손흥민이 오른발로 통렬한 중거리슛을 날려 아스널의 골대를 갈랐다.

골대 오른쪽 구석을 노린 손흥민의 슈팅은

아스널 선수 발을 스치고 골대로 들어갔다.

지난달 16일 16라운드 사우샘프턴과의 리그 경기에서 1골 2도움을 올린 손흥민은 한달 만에 리그 득점포를 가동했다.

직전에 치른 13일 탬위스와 FA컵 3라운드에서 올린 도움에 이은 공식전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다.

손흥민은 리그 6호 골이자 공식전 8호(유로파리그 1골·카라바오컵 1골) 골을 기록했다. 도움은 리그에서 6개, 공식전에서 7개(FA컵 1개)를 기록 중이다.

북런던 더비 9호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후반 23분 히살리송과 교체되며 그라운드에서 물러났다.

손흥민은 아스널에 강한 면모를 이어갔으나 토트넘은 5경기 만에 리그 승전고를 울리는 데 실패했다.

토트넘은 사우샘프턴전 5-0 승리 이후 5경기에서 1무 4패를 기록하며 무승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토트넘이 리그 북런던 더비에서 원정 승리를 거둔 건 2010년 11월(3-2)이 마지막이다. 이후 15년 가까이 아스널 원정에서 승전보를 보내지 못했다.

토트넘은 왼쪽의 손흥민, 최전방 도미니크 솔란케, 오른쪽 데얀 쿨루세브스키의 삼각편대를 앞세워 부지런히 아스널 골문을 위협했고, 손흥민의 골로 승리에 한 걸음 다가서는 듯했다.

그러나 홈에서 강한 아스널의 반격은 거셌다. 전반 40분 아스널 가브리엘우 마갈랑이스가 왼쪽에서 올라온 코너킥을 헤더로 마무리한 것이 경합하던 솔란케의 몸을 맞고 토트넘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이는 솔

란케의 자책골로 기록됐다.

4분 뒤에는 레안드로 트로사르가 역전골을 넣었다. 역습 상황, 골 지역 왼쪽에서 송곳같은 왼발 슈팅을 날려 2-1을 만들었다.

양 팀은 후반에도 치열하게 서로의 골문을 노렸으나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다.

11경기 무패 행진을 벌인 아스널은 2위(승점 43)로 올라섰고, 토트넘은 13위(승점 24)에 머물렀다.

황희찬이 뛰는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역시 뉴캐슬과 원정 경기에서 0-3으로 져 두경기 연속 패했다. 선발 출전한 황희찬은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프타임에 마테우스 쿠냐와 교체됐다.

울버햄프턴은 강등권인 18위(승점 16)에 자리했고, 뉴캐슬은 4위(승점 38)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서울이나 전북이나... 2036 올림픽 유치 후보지 내달 28일 결판

현장실사 종료 본격 심사 과정 돌입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투표로 결정

서울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로 압축된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도시 경쟁에서 어디가 승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유치를 희망한 서울시와 전북도에 대한 후보도시 현장실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심사 과정에 들어갔다.

체육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24일 국제위원회 심의와 다음 달 17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8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후보도시(지역)를 결정한다.

대의원총회에선 후보도시(지역)가 각각 45분 프레젠테이션에 이어 15분 질의응답을 하며, 평가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 직후 대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2019년 부산시를 따돌리고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도시로 선정된 후 남북 공동 유치를 추진했으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호주 브리즈번을 '우선협상도시'로 선정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전북도도 2014년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무주를 내세웠으나 경쟁을 벌인 강원도 평창에 국내 유치 후보도시 자리를 내줬던 아픈 기억이 있다.

평창은 러시아 소치에 2014년 동계올림

픽 개최권을 내준 후 2018년 대회 개최에 성공했다.

서울시와 전북도는 현장실사 때 차별화한 강점을 내세웠다.

서울시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스포츠시설은 물론 교통·숙박 등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종합 경쟁력 6위의 국제적인 도시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기존 시설을 100% 가까이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인천국제공항 및 경기장 간 이동거리가 1시간 이내여서 IOC 요구 조건에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작년 여름 진행된 시민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서울시민 85.2%가 올림픽 유치에 찬성하는 점을 들어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영광 재현을 노리고 있다.

이에 맞서는 전북도는 최근 올림픽 유치도시들의 콘셉트인 '지방도시연대'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림픽을 유치하면 육상 경기를 대구스타디움에서 개최하고, 광주(국제양궁장·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충남 홍성(충남국제테니스장), 충북 청주(청주다목적실내체육관), 전남 고흥(남열해돋이해수욕장) 등에서 분산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IOC가 지향하는 인접도시연대를 통한 비용 절감 요구에 부합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경제력의 분산으로 균형 발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